여대생의 생활양식에 따른 의복선택기준에 관한 연구
-청주시를 중심으로-

김순심* · 김선화**

*서원대학교 의류학과
본 연구는 1999년도 서원대학교 응용과학연구소의 연구지원비로 수행된 것임
**순천대학교 의류학과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및 논의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론

최근 의류업계에서는 수많은 브랜드들이 새로 등장하거나 소멸해 가는 현상이 잦아지고 여기에 유명 수입 브랜드까지 가세하여 같은 의복 아이템이라도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의복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가 소비자의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의복구매 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소비자의 불만족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의복을 구입하게 되는 동기부터 시작하여 의복구입 시 무엇을 고려할 것인지, 어느 정보원을 이용하는 것이 유익한지, 어떤 상점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등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의복을 구매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복 선택 기준은 소비자들이 의복을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의복의 주관적 혹은 객관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의복구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의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비자의 행동은 그들의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심미적 요인들에 따른 다양한 선택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들의 성, 연령, 직업, 결혼여부, 교육정도 등의 인구통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등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가치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Engel, Blackwell(1982)는 소비자

의 의복선택 기준은 과거로부터의 소비자의 경험과 정보, 여러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축적되어 이루어진 가치 등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하였다.

생활양식은 1963년 미국 마케팅학회에서 처음 소개된 이후 지금까지 소비자의 다양한 특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여겨져 왔다. Sproles(1979)는 의복이 단순한 물질적 객체가 아니라 생활양식의 표현물로서 소비자의 생활양식에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오늘날 소비자들의 생활양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의류 소비의 동향이 변화되고 있으므로 의류업계는 소비자의 생활 양식의 유형에 따라 중요시하는 선택기준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소비자들이 원하는 의류 상품을 생산하는 상품 기획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변수로써 생활양식에 따른 의복선택기준에 관한 몇몇 선행 연구들이 있으나 서울지역에 국한되어 이루어져왔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의류소비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외면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도시의 하나인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대생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생활양식에 따른 의복 선택기준을 조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 경

1. 생활양식

생활양식이란 사람들의 의식이나 행동양식의 사회적, 계층적 차이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사회심리학적인 개념으로 1963년 미국 마아케팅학회의 동기대회 심포지움에서 마아케팅 분야에 처음 도입되었다. 개인의 소비양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Engel, Blackwell (1982) 등은 생활양식이란 사람의 생활 혹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유형으로서 생활의 특징적 양상이며 개인이 문화, 사회계급, 준거집단, 가족 등의 영향을 받아 습득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가치체계나 개성의 파생물이라고 할 수 있고 소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적 특성이다고 하였다.

의복은 착용자의 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Sproles(1979)는 의복은 단순한 물질적 객체가 아닌 생활양식의 표현물로서 소비자들은 생활양식과 일치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므로 의복은 생활양식의 상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Smitley(1989)는 50세 이상의 여성들의 생활양식에 따른 의복선호도 연구에서 노년층의 생활양식이 다양하며, 생활양식에 따라 선호하는 의복유행이 다르다고 하여 노년층 소비자들이 동질적인 집단이 아님을 밝혔다. Gutman과 Mills(1982)는 의복구매와 관련하여 생활양식을 유행선도력, 유행에 관한 관심, 반유행적 태도, 쇼핑에 대한 즐거움, 사회적 중요성, 가격에 대한 고려성, 실용성, 계획성, 추종성, 전통성 등 10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손 미영(1988)이 의복구매행동과 관련하여 생활양식을 유행과 외모, 가사, 장래생활, 예술활동 등에 대한 관심, 공동체 의식 등 5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김 미영(1989)은 주부들의 생활양식과 의복평가기준에 관한 연구에서 생활양식에 따라 조사대상을 성취추구형, 여가활동형, 물질추구형, 보수절약형, 소극침체형과 같은 5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성주(1984)는 생활양식을 유행추종형, 의복무관심형, 개방혁신형, 미적 낭만형, 개성추구형 등 5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임 경복(1991)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생활양식과 의복구매에 관한 연구에서 생활양식을 5집단으로 구분하고 유행추구형, 가정지향형, 보수알뜰형, 외부지향형, 소극침체형 등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6가지 요인의 생활양식 차원이 사용되었다.

1) 지적성취지향형

여가를 즐기면서 교양과 취미활동에 관심이 많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꾸준히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강하며 자기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높은 성취욕구를 가진 형.

2) 자유개방지향형

부를 누리기를 원하며 의복과 미용에 관심이 많고 유행에 대한 흥미가 높으며 인생을 즐겁게 놀고 즐기려는 형

3) 보수주의지향형

전통적 여성 역할에 관심이 많고 보수적인 취향과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적인 관습을 따르고 그러한 면에 비중을 많이 두는 형

4) 절약검소지향형

경제적 문제에 관심이 많아 쇼핑 시 가격확인과 물건 구매 시 정보의 수집, 점포 선택 등에 주의를 기울이며 근검절약하고 짜여진 예산 하에서 지출하는 경제충실성향이다.

5) 물질여유추구형

사업과 같이 부를 축적하는데 관심이 많고 부를 즐기며 과시하기도 하고 상표를 중요시하며 쇼핑하기를 좋아하고 값비싼 물건을 구입하는 형.

6) 미적감각추구형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미를 중요시함으로써 미를 추구하는 일과 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은 형

2. 의복선택기준

소비자는 상품의 사용을 통하여 여러 가지의 혜택을 기대하는데 상품에 따라서 각기 다른 가치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목적을 얻기 위해 상품을 선택할 때 평가의 기준도 다를 것이다. 상품의 평가기준이란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기준들 또는 특성의 명세들이며 상품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다(Howard, 1970: 28). 평가 기준이 되고 있는 상품 특성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기본적인 특성과 소비자들이 상품에서 얻고자 하는 서비스의 추상적인 특성, 즉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주관적인 특성도 포함되며 이들 사이에는 상호 관계가 있다.

의류 제품의 사용을 통하여 소비자들은 자기향상, 사회적 위신, 성적매력, 여성다움, 유행성, 기능성, 안락감, 역할상징, 체형 결점 보완, 개성, 세련된 외모 등과 같은 긍정적인 혜택을 얻기를 원하며 소비자마다 의복에서 기대하는 목적이 각기 다르므로 각기 다른 의복선택기준이 있을 수 있다. 의복선택기준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Francis와 Dickey(1981)는 의복구매의 평가기준에 의복 자체의 물리적 속성인 도구적 평가기준과, 개인의 기호, 가치, 태도에 따른 주관적 평가인 표현적 평가기준, 그리고 옷을 구매할 때의 특별한 관점인 시장평가기준을 포함하였다.

Jacoby 등은(1972) 상품평가단서를 제품 그 자체의 물리적 특성들의 단서인 내재적 단서와 생산자나 판매자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는 단서인 외재적 단서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외재적 단서는 생산자나 판매자에 의해 적용되어질 수 있는 제품 특성으로서 가격, 상표, 원산지의 나라, 상점, 다른 옷과의 조화, 판매원의 평가, 다른 사람의 반응 등이 포함되며, 내재적 단서에는 색상/디자인, 무늬패턴, 독특성, 스타일링, 옷감, 섬유의 종류, 몸에 맞는 정도, 외관, 이성에게 어필, 옷의 관리 및 세탁방법, 편안함, 재단과 봉재, 내구성 등이 포함되었다.

Eckman 등(1990)은 제품속성 변인들을 미적 평가, 유용성 평가, 연출과 질적 평가, 외재적 평가 등의 4개 범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미적 평가 항목에는 색상/무늬패턴, 독특성, 스타일링, 옷감, 외관을 포함시켰고, 유용성 항목에는 다양성, 다른 옷과의 조화, 상황 적합성, 실용성을 포함시켰고, 연출과 질적 항목에는 몸에 맞는 정도, 옷의 관리 및 세탁방법, 편안함, 재단과 봉재를 포함시켰고, 외재적 평가 항목에는 가격, 상표, 상점 등을 포함시켰다. 의복 구입 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 평가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구매 시 색상은 반드시 고려되는 속성이라고 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이 제품의 비본질적 속성에 대하여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Sproles(1979)는 의복을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들은 스타일과 맞음새, 가격, 물리적 특성, 상표, 기후, 관리 등이며 의류제품은 대표적인 패션제품으로서 제품의 비본질적 속성인 사회심리적 기준에 따라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패션제품에서 상징적 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복 상표는 소비자의 의복구매행동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며 의복평가기준으로서 제품 구매 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hiling과 Wilch(1988)도 소비자들이 의복이 갖는 본질적 특성 뿐 아니라 점포 이미지와 쇼핑 경험, 상품 가격, 상표명, 광고 그리고 과거 상품의 경험과 같은 비본질적인 단서들에 대한 영향력에 대하여 역설하였다.

Jenkin과 Dickey(1976)는 생활양식을 유행지향형, 품질추구형, 실리추구형, 심

미추구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12개의 평가기준항목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타인의 승인, 직물의 종류와 질, 상표와 가게명, 재단의 질, 관리의 용이성, 섬유의 종류, 편안함, 적합성, 미 혹은 매력, 가격에 비해 좋은 옷을 사는 것인가, 유행성, 내구성이었다.

Blackwell 과 Hilliker(1978)는 문제 인식, 내적탐색, 외적탐색, 선택과정과 같은 의사결정단계서 소비자가 의복평가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연구하였다. 색상, 옷의 맞음새, 가격, 옷의 관리방법, 재단방법이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사용되었고, 모양과 편안함이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사용되었다.

McLean과 Roper, Smothers(1986)는 의복구매의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에서 수입제품의 원산지와 다른 옷과의 조화나 가격, 색상, 스타일을 변인으로 하여 연구한 결과 원산지 보다 다른 제품 속성 즉 다른 옷과의 조화나 가격, 색상, 스타일 등이 더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스타일은 매우 중요한 변수였다.

홍금희(1991)는 여성복의 구매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속성들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연구에서 색상, 미, 나에게 어울림, 상황적합성, 다른 사람의 반응, 몸에 맞는 정도, 옷의 관리 및 세탁방법, 가격, 값에 비해 좋은 옷을 삼, 다른 옷과의 조화, 편안함, 섬유의 종류, 재단과 봉재, 내구성, 유행성, 이성에게 어필, 품위, 품격, 독특성을 제품속성 변인으로 하여 연구하였다.

김 현미(1992)의 연구에서는 심미성, 편안함, 유행성, 내구성, 경제성, 세탁 및 관리의 용이성, 착용자와 어울림, 상표, 가격, 타인의 승인, 섬유/옷감, 재단과 재봉, 맞음새, 색상/무늬, 디자인/스타일에 관한 사항을 의복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의복선택기준 중에서 디자인, 가격, 색상, 품질, 상표, 맞음새, 관리용이, 조화, 유행성, 사후서비스 등 10개의 일반적인 의복선택기준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선행 연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의복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장류의 의복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중요시하는 것인지로 제한을 하였다.

3. 의복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비자가 의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생활양식이나 성, 연령, 직업, 결혼여부, 교육정도 등의 사회 · 경제 · 문화적 요인이 의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Kefgen 등은(1976)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가장 의복에 제일 관심이 많은 시기이며 10대에는 의복을 선택할 때 사회적 승인을 가장 중요시하고 이 시기에는 패셔너블한 외모를 형성하기 위해 실용성, 경제성은 문제삼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성 · 정숙성을 중시하여 중년층은 가격, 품질, 관리 면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였다.

Summers(1992)등은 도시와 교외에 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패션과 의복쇼핑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도시와 교외에 사는 소비자 사이에 패션과 의복쇼핑에 대한 태도에는 차이가 없으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확연하다고 하였으며 특히 61세 이상의 노년층은 패션을 싫어하고 품질 위주의 쇼핑을 한다고 하였다.

Kundel(1976)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들이 의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안락감과 맞음새이며 그 부인들은 맞음새, 안락감, 가격 순으로 중요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장연화(1982)가 20대와 40대의 두 연령 집단의 여성을 대상으로 디자인, 색상이나 무늬, 가격, 상표 및 제조회사, 관리 및 세탁방법, 부모나 친구의 권유 유무, 소유하고 있는 의복과의 조화 여부 등 7개의 의복평가기준이 어떻게 다른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결과는 동일하였으며, 홈웨어가 색상이나 무늬와 디자인이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나타난 반면, 평상 외출복과 정장은 디자인이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나타났다.

정혜영(1984)은 대학 1학년과 4학년의 두 여대생 집단을 대상으로 의복 구매 시 스타일, 가격, 봉제, 상표명, 색채, 용이한 관리, 맞음새, 어울림 등의 의복선택요인에 대하여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의복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울림이며, 스타일, 가격, 색채 순서로 중요하게 여기며, 1학년 집단은 어울림, 스타일, 가격의 순서로 중요시하였고, 4학년 집단은 가격을 가장 중요시하고, 다음으로 스타일과 어울림을 같은 비율로 중요시하였다.

이성주(1984)는 정장과 간편복에 대하여 여대생의 생활양식유형에 따라 의복 구매 시 색상과 디자인, 가격과 관리성, 유행, 편안함과 치수, 상표 등 5개의 평가기준이 어떻게 다른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집단 모두 정장의 경우는 색상과 디자인을 가장 중요시하고, 다음은 가격과 관리성, 편안함과 치수, 상표의 순서로 중요시한다고 나타났다. 간편복의 경우는 색상과 디자인, 편안함과 치수를 중요시하고, 다음은 가격과 관리성, 유행의 순서로 중요시한다고 나타났다.

민동원(1986)은 블라우스와 스커트의 구매시 옷의 아름다움, 나에게 어울림, 주위 사람들의 칭찬, 손질과 관리가 간편함, 값싸고 오래 입을 수 있음과 같은 평가기준에 대하여 20대 미혼여성이 중요시하는 정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나에게 어울림을 가장 중요시하고, 손질과 관리가 간편함, 입어서 편안함, 옷의 아름다움을 비슷하게 중요시한다고 나타났으며, 주위의 사람들의 칭찬은 가장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이혜주(1987)는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의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직업여성이 의복 구매 시 색상과 무늬 및 디자인, 가격, 바느질과 상표, 편안함과 치수 등의 4개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색상과 무늬 및 디자인을 가장 중요시하고, 다음은 편안함과 치수, 가격, 바느질과 상표의 순서로 중요시한다고 나타났다.

김미영(1989)은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착용자에 적합한가, 옷의 맞음새, 편안함, 착용상황의 적합성, 타인의 승인, 이성에게 매력적인가, 품위, 유행, 미(아름다

움), 관리 및 세탁의 용이성, 값에 비해 좋은 옷을 사는 것인가, 내구성, 가격, 색, 섬유의 종류, 재단의 질, 직물의 종류와 질, 상표명 등 18개의 평가기준을 신분 상징성, 유행성, 실용성, 경제성의 4개 차원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의복 평가 기준이 생활 양식 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생활양식 유형에 따라 의복평가기준에 차이가 나타났고 모든 집단에서 실용성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분 상징성이 유행성보다 높게 나타나 품위와 상표의 명성으로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의복 선택 행동들은 성, 년령, 직업, 결혼여부, 교육정도와 같은 인구통계적 특성이나 생활 양식과 같은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복선택기준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2) 생활양식에 따라 여대생을 유형화시킨 후,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3) 생활양식에 따른 의복선택기준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본 논문의 연구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의복선택기준과 생활양식에 사용된 측정문항들은 선행연구-류은정(1991), 손미영(1988), 박선영(1986), 원선(1987), 박 은주(1987), 김미영(1989)-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예비조사와 신뢰도 측정을 통하여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고 5점 평정 척도법으로 측정하였다. " 전혀 그렇지 않다" 에 1점, "매우 그렇다" 에 5점을 주었다.

측정도구의 타당도는 관련분야의 교수 3인으로부터 문항내용을 검토 받아 내용 타당도를 확인 받았고, 측정 척도들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을 구하여 각 측정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고 설문지를 최종 완성하였다.

2) 자료수집

1999년 9월 20일부터 25일 까지 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1999년 9월 27일부터 10월 15일 까지 청주시내 여대생을 중심으로 예체능계와 일반계열학과를 구분하여 총 4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것 중에서 불완전한 질문지를 제외한 365부가 분석에 최종 사용되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AS 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포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생활양식에 따라 연

구대상을 유형화시키기 위해서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에 의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차원을 밝힌 후 차원에 따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행하였다. 생활양식의 요인들의 내적 일치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각 집단간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t검증을 이용하였고,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복선택기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일원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의복선택기준과 생활양식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이용하였고, 유의한 변인에 대해서는 다중비교법인 Duncan Test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인구통계적 변인과 의복선택기준과의 관계

표 1에 따르면 의복을 선택할 때 전공에 따라 품질을 고려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능계의 여대생이 비예능계의 여대생보다 품질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의 다른 선택기준 요인에는 전공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전공에 따른 의복선택기준 d.f=365

의복선택기준	전공여부	평균	표준편차	F값
디자인	예능계	4.25	0.65	0.190
	비예능계	4.22	0.65	
가격	예능계	4.01	0.78	0.351
	비예능계	4.13	0.73	
색상/무늬	예능계	4.18	0.62	3.101
	비예능계	4.18	0.55	
품질	예능계	4.04	0.74	5.760*
	비예능계	3.83	0.79	
상표	예능계	3.03	0.93	0.537
	비예능계	2.87	0.93	
맞음새	예능계	4.05	0.70	0.027
	비예능계	4.03	0.70	
관리용이	예능계	3.37	0.82	2.969
	비예능계	3.47	0.90	
조화(코디)	예능계	3.91	0.72	0.080
	비예능계	3.97	0.74	
유행성	예능계	3.18	0.87	0.014
	비예능계	3.19	0.85	
사후서비스	예능계	3.30	0.91	0.895
	비예능계	3.18	0.88	

* $p < .05$

표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의복선택기준 중에서 디자인과 다른 옷과의 조화 두 항목 만 아버지의 학력과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의복선택기준 d.f=365

의복선택기준	전공여부	평균	표준편차	F값
디자인	국졸이하	3.77[a]	0.93	3.359*
	중졸	4.37[b]	0.56	
	고졸	4.20[b]	0.63	
	전문대졸이상	4.27[b]	0.66	
가격	국졸이하	4.00	1.08	0.154
	중졸	4.12	0.81	
	고졸	4.07	0.73	
	전문대졸이상	4.04	0.74	
색상/무늬	국졸이하	3.92	0.76	2.391
	중졸	4.27	0.60	
	고졸	4.13	0.56	
	전문대졸이상	4.24	0.58	
품질	국졸이하	3.54	0.78	1.562
	중졸	3.94	0.92	
	고졸	3.90	0.73	
	전문대졸이상	3.99	0.76	
상표	국졸이하	2.85	1.34	2.025
	중졸	3.21	0.98	
	고졸	2.87	0.88	
	전문대졸이상	2.98	0.89	
맞음새	국졸이하	4.15	0.38	1.001
	중졸	4.13	0.69	
	고졸	3.98	0.73	
	전문대졸이상	4.07	0.69	
관리용이	국졸이하	3.46	0.78	0.223
	중졸	3.50	0.94	
	고졸	3.43	0.81	
	전문대졸이상	3.39	0.89	
조화(코디)	국졸이하	3.46[a]	1.13	3.467*
	중졸	4.13[b]	0.53	
	고졸	3.90[b]	0.70	
	전문대졸이상	3.98[b]	0.76	
유행성	국졸이하	3.00	0.91	0.909
	중졸	3.27	0.84	
	고졸	3.25	0.86	
	전문대졸이상	3.13	0.84	
사후서비스	국졸이하	3.00	0.82	1.792
	중졸	3.25	0.90	
	고졸	3.15	0.82	
	전문대졸이상	3.36	0.97	

* $p < .05$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고졸, 전문대졸 이상인 집단이 국졸인 집단보다 의복을 선택할 때 디자인에 대하여 그리고 다른 옷과의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더 많은 고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직업에 따른 의복선택기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가족의 월 평균 수입에 따른 의복선택 기준의 차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의 월 평균 수입에 따른 의복선택기준은 유행성과 사후 서비스 두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수입이 300~ 400만원인 학생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유행성에 대하여 가장 중요시하였다. 교환이나 환불, 수선 등과 관련되는 사후서비스에 대해서는 월 평균 수입이 200~ 400만원인 학생 집단이 다른 집단 보다 더 많은 고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수입이 200~ 400만원인 학생 집단은 비교적 수입이 높은 집단으로서 사후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점포에서 의복을 구입하거나 사후 서비스를 잘 하여 주는 고가의 상품을 구입할 여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표 4에서 월 평균 의복구입비용이 많은 집단이 유행, 상표, 사후 서비스와 같은 의복선택기준 항목을 중요시하였던 것에서도 증명이 되었다. 의복의 구매력은 가계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업계는 가계소득이 높고 구매력이 높은 집단이 중요시 여기는 사후서비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하리라고 본다. 유행성과 사후서비스와 같은 의복선택 항목은 의복의 비본질적 특성으로서 실용성이나 유용성과는 상관관계가 적은 항목이라고 할 수 있어서 월수입이 높은 여대생 집단이 의복의 실용성에 낮은 태도를 나타내었던 김 순심 등(2000)의 연구 결과와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월 평균 수입이 400만원 이상인 경우가 300~ 4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유행성을 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의외라고 생각한다.

표 4 월 평균 의복구입비용에 따른 의복선택기준의 차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대생들의 월 평균 의복구입비용에 따른 의복선택기준에서는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비해 많은 의복선택기준 항목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디자인과 월 평균 의복구입비용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의복구입에 월 평균 15만원 이상 쓰는 경우가 그 이하인 경우보다 즉, 의복구입에 많은 돈을 쓸수록 의복을 구입할 때 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격과 월 평균 의복구입비용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월 평균 의복구입비용이 적을수록 구입하려는 의복의 가격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만원 미만의 경우 의복구입 비용이 적음에 따라 가격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사료된다. 20만원 이상인 경우는 가격에 대해서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어서 의복 구입비용이 많을수록 가격에 대한 고려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유행성과 월 평균 의복구입비용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의복구입비용이 10만원-15만원인 그룹과 15만원-20만원 미만인 두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의복을 구입할 때 의복의 유행성에 대해서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 평균 구입비용이 20만원 이상으로 매우 높은 학생의 경우 유행성에 대한 고려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류층은 유행보다 오히려 클래식한 디자인의 의복을 선호하며 중류층은

신분 상승의 방편으로 유행을 따르게 됨으로써 중류층에 비해 상류층이 유행에 대해서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학생으로서 월 평균 20만원 이상을 의복 구입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상류층이라고 볼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견해와 같이 해석 할 수 있다. 다.

상표와 월 평균 의복구입비용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상표에 있어서도 유행성과 마찬가지로 의복구입비용이 10만원-15만원 그룹과 15만원-20만원 미만인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의복구입 시 상표에 대한 고려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히려 2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고려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서비스와 월 평균 의복구입비용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10만원 이상으로 월 평균 구입비용이 높은 학생들이 10만원 미만의 학생들에 비해 사후 서비스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김 순심(1999)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월 평균 구입비용이 낮은 경우 의류상가 밀집지역이나 기성복 할인매장, 동네 양품점과 같이 교환, 수선과 같은 사후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포를 선택하는 반면 10만원 이상으로 월 평균 의복 구입비용이 높은 학생들은 백화점, 유명 브랜드 매장과 같이 사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점포를 이용한 경험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의복구입비용이 10만원 이상인 집단이 10만원 미만의 집단보다 의복을 구입할 때 의복의 유행성, 상표, 사후 서비스와 같은 상품의 비본질적 속성에 대해서 더 많은 고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가족의 월평균 수입에 따른 의복선택기준의 차이 d.f=365

의복선택기준	전공여부	평균	표준편차	F값
디자인	100만원 미만	4.08	0.70	1.091
	100-200만원 미만	4.21	0.65	
	200-300만원 미만	4.28	0.61	
	300-400만원 미만	4.27	0.65	
	400만원 이상	4.41	0.57	
가격	100만원 미만	3.96	0.89	1.270
	100-200만원 미만	4.15	0.73	
	200-300만원 미만	4.08	0.69	
	300-400만원 미만	4.01	0.75	
	400만원 이상	3.85	0.77	
색상/무늬	100만원 미만	4.08	0.76	0.513
	100-200만원 미만	4.16	0.56	
	200-300만원 미만	4.18	0.54	
	300-400만원 미만	4.23	0.53	
	400만원 이상	4.26	0.76	
품질	100만원 미만	3.96	0.79	0.355
	100-200만원 미만	3.90	0.78	
	200-300만원 미만	3.96	0.68	
	300-400만원 미만	3.91	0.78	
	400만원 이상	4.07	0.83	
상표	100만원 미만	3.08	1.08	0.951
	100-200만원 미만	2.92	0.89	
	200-300만원 미만	2.88	0.85	
	300-400만원 미만	3.11	0.96	
	400만원 이상	2.93	1.04	
맞음새	100만원 미만	4.16	0.75	1.432
	100-200만원 미만	4.09	0.66	
	200-300만원 미만	4.01	0.69	
	300-400만원 미만	4.07	0.65	
	400만원 이상	3.78	0.85	
관리용이	100만원 미만	3.36	0.95	0.967
	100-200만원 미만	3.45	0.81	
	200-300만원 미만	3.50	0.80	
	300-400만원 미만	3.43	0.92	
	400만원 이상	3.15	0.99	
조화(코디)	100만원 미만	4.04	0.98	0.360
	100-200만원 미만	3.90	0.69	
	200-300만원 미만	3.95	0.69	
	300-400만원 미만	4.00	0.72	
	400만원 이상	3.96	0.81	
유행성	100만원 미만	3.16[a]	1.07	2.401*
	100-200만원 미만	3.06[a]	0.81	
	200-300만원 미만	3.22[a]	0.84	
	300-400만원 미만	3.42[b]	0.79	
	400만원 이상	3.15[a]	1.03	
사후서비스	100만원 미만	3.08[a]	0.81	5.111**
	100-200만원 미만	3.04[a]	0.82	
	200-300만원 미만	3.37[b]	0.92	
	300-400만원 미만	3.53[b]	0.82	
	400만원 이상	3.07[a]	1.11	

* $p < .05$ ** $p < .01$

〈표 4〉 전공에 따른 의복선택기준 d.f=365

의복선택기준	월평균의복구입비용	평균	표준편차	F값
디자인	5만원 미만	4.19[a]	0.63	2.634*
	5-10만원 미만	4.28[a]	0.65	
	10-15만원 미만	4.22[a]	0.58	
	15-20만원 미만	4.63[b]	0.50	
	20만원 이상	4.50[b]	0.97	
가격	5만원 미만	4.18[a]	0.70	4.618*
	5-10만원 미만	3.99[b]	0.72	
	10-15만원 미만	4.02[b]	0.75	
	15-20만원 미만	3.74[b]	0.93	
	20만원 이상	3.40[c]	0.84	
색상/무늬	5만원 미만	4.19	0.57	0.409
	5-10만원 미만	4.18	0.59	
	10-15만원 미만	4.16	0.48	
	15-20만원 미만	4.21	0.63	
	20만원 이상	4.40	0.70	
품질	5만원 미만	3.96	0.70	1.265
	5-10만원 미만	3.89	0.81	
	10-15만원 미만	3.94	0.77	
	15-20만원 미만	3.68	0.75	
	20만원 이상	4.30	0.95	
상표	5만원 미만	2.76[a]	0.92	8.641**
	5-10만원 미만	3.04[a]	0.82	
	10-15만원 미만	3.42[b]	0.79	
	15-20만원 미만	3.47[b]	0.84	
	20만원 이상	2.90[a]	1.10	
맞음새	5만원 미만	4.03	0.65	0.645
	5-10만원 미만	4.11	0.71	
	10-15만원 미만	4.09	0.68	
	15-20만원 미만	4.11	0.66	
	20만원 이상	3.80	1.23	
관리용이	5만원 미만	3.49	0.79	1.179
	5-10만원 미만	3.33	0.87	
	10-15만원 미만	3.50	0.89	
	15-20만원 미만	3.47	0.96	
	20만원 이상	3.10	1.29	
조화(코디)	5만원 미만	3.90	0.73	1.999
	5-10만원 미만	3.96	0.68	
	10-15만원 미만	4.03	0.71	
	15-20만원 미만	4.32	0.75	
	20만원 이상	3.70	0.95	
유행성	5만원 미만	3.07[a]	0.78	8.226**
	5-10만원 미만	3.16[a]	0.86	
	10-15만원 미만	3.66[b]	0.67	
	15-20만원 미만	3.74[b]	1.24	
	20만원 이상	3.10[a]	0.88	
사후서비스	5만원 미만	3.17[a]	0.87	2.841*
	5-10만원 미만	3.17[a]	0.80	
	10-15만원 미만	3.56[b]	0.96	
	15-20만원 미만	3.42[b]	1.17	
	20만원 이상	3.40[b]	1.07	

* $p < .05$

2. 생활양식과 인구통계변인과의 관계

1) 생활양식의 요인 분석

표 5는 생활양식에 따라 연구대상을 유형화시키기 위해 varimax방법에 의해 직교회전시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차원을 밝힌 후 차원에 따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행한 결과이다. 요인분석에서 얻어진 6가지 요인에 대해 집단분류분석을 한 결과 5개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1은 절약검소지향형, 보수주의지향형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적성취지향형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표준화된 요인점수도 모두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적 감각추구형과 자유개방지향형, 물질여유추구형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고 표준화된 요인 점수도 물질여유추구형과 미적감각추구형은 음의 값으로 나타나서 이 집단을 보수절약형으로 명명한다.

집단2는 집단간 순위를 보면 지적성취지향형과 자유개방지향형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미적감각추구형과 절약지향형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준화된 요인 점수는 절약검소지향형과 보수주의지향형에서 음의 값이 나왔고 나머지는 모두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집단을 지적성취형이라 명명한다.

집단3은 미적감각추구형과 보수주의지향형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물질여유추구형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유개방지향형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집단을 물질추구형이라 명명한다.

집단4는 집단간 순위에서 미적감각추구형만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는 비교적 낮거나 아주 낮게 나타났다. 요인 점수는 미적감각추구형과 자유개방형만이 양의 값이고 나머지는 모두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집단을 미적 추구형이라 명명한다.

집단5는 절약검소지향형, 자유개방지향형, 물질여유추구형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지적성취지향형은 가장 낮게, 미적감각추구형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집단을 자유개방형이라고 명명한다.

〈표 5〉 집단별 생활양식의 표준화된 요인점수와 결과에 따른 집단간 순위

집단 생활양식요인	1	2	3	4	5
미적감각추구형 집단간 순위	-0.2901 3	-0.7627 5	-0.3433 2	0.8972 1	-0.3593 4
지적성취지향형 집단간 순위	0.4505 2	0.9086 1	-0.0056 3	-0.0448 4	-1.0317 3
절약검소지향형 집단간 순위	0.8931 1	-0.8588 5	-0.1523 3	-0.4210 4	0.3911 2
자유개방지향형 집단간 순위	0.0979 4	0.6081 1	-0.8876 5	-0.2526 3	0.5414 2
물질여유추구형 집단간 순위	-0.7267 4	0.3149 3	0.5279 1	-0.9404 5	0.3741 2
보수주의지향형 집단간 순위	0.5012 1	-0.2662 4	-0.2645 2	-0.7278 5	-0.0653 3

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요인분석에서 얻어진 6가지 요인에 대해 집단분류 분석을 하여 5개 집단으로 분류한 결과 5집단 중에서 물질추구형이 전체 여대생의 30.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지적성취형이 14.8%를 차지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6〉 전공별 생활양식

			생활양식					전체	x^2통계량	유의확률
			보수 절약형	지적 성취형	물질 추구형	미적 추구형	자유 개발형			
전공 여부	예능계	빈도	28	31	58	32	26	175	10.920 (df=4)	0.027
		생활양식의 %	41.8	57.4	52.7	55.2	34.2	47.9		
	비예능계	빈도	39	23	52	26	50	190		
		생활양식의 %	58.2	42.6	47.3	44.8	65.8	52.1		
전체		빈도	67	54	110	58	76	365		
		전체	18.4	14.8	30.1	15.9	20.8	100.0		

〈표 7〉 월 평균의복구입 비용에 따른 생활양식

			생활양식					전체	x^2통계량	유의확률
			보수 절약형	지적 성취형	물질 추구형	미적 추구형	자유 개발형			
구입	5만원 이하	빈도	45	28	39	22	33	167	33.191 (df=12)	0.007
		생활양식의 %	68.2	51.9	36.8	40.0	44.6	47.0		
	5-10 만원	빈도	15	13	36	16	24	104		
		생활양식의 %	22.7	24.1	34.0	29.1	32.4	29.3		
	10-15 만원	빈도	3	7	24	12	11	57		
		생활양식의 %	4.5	13.0	22.6	21.8	14.9	16.1		
	15-20 만원	빈도	3	6	7	5	6	27		
		생활양식의 %	4.5	11.1	6.6	9.1	8.1	7.6		
전체		빈도	66	54	106	55	7.4	355		
		전체 %	18.6	15.2	29.9	15.5	20.8	100.0		

이는 청주지역의 여대생이 여가생활, 교양, 취미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 성취의욕을 가지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꾸준히 활동하고자 하기보다는 전통적 여성 역할에 관심이 많고 보수적인 취향과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적인 생활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면이 많음을 나타낸다. 한편 근검절약하고 짜여진 예산 하에서 지출하기 보다는 부유하게 생활하고 값비싼 물건을 구입하며 쇼핑하기를 좋아하고, 의복과 미용, 유행에 대한 흥미가 높은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일반계열과 예체능계의 계열별로 생활양식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일반계열 학생들은 예체능계 학생들 보다 보수절약형과 자유개방지향형의 비율이 높았으나 지적성취형, 물질추구형, 미적추구형의 비율은 예체능계 학생들이 더 높았다.

아버지의 학력이나 직업, 또는 아버지의 월 평균 수입과 생활양식간에는 x^2-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월 평균 의복구입비용과 생활양식간에는 x^2-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학생의 50%가까운 학생들이 월 평균 의복구입비용이 5만원 미만 이며, 7.6% 학생만이 15만원 이상을 월 평균 의복구입비로 사용하고 있다. 생활양식을 보았을 때, 보수절약형의 68.2%가 월 평균 의복구입비용이 5만원 미만으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복구입비용이 많아질수록 보수절약형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네 가지 생활양식 유형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3. 생활양식에 따른 의복선택기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대생의 생활양식에 따라 의복선택기준 중에서 디자인과 상표, 맞음새, 다른 옷과의 조화, 유행성은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미적추구형과 자유개방형 집단이 다른 유형의 집단들보다 의복을 구입할 때 더 많은 고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순심(2000)의 연구에서 미적추구형 여대생 집단이 심미성 의복 태도와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낸 반면, 보수절약형은 낮은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던 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적 추구형과 개성적인 면을 추구하는 자유개방형의 경우 디자인에 대한 고려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신발 구매에 대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박주철(1990)의 연구에서 여고생이 신발 구매 시 제품 내용 면에서는 디자인-상표-색상-유행 순서로 영향을 미쳤으며 차온영(1991)은 직장 여성의 숙녀화 구매 시 중요시하는 평가기준이 디자인, 품질, 색상, 가격, 브랜드 순서이었던 것처럼 젊은 층의 소비자에게 있어서 디자인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요인임에 틀림이 없다.

상표에 대해서는 물질추구형과 자유개방형 집단이 다른 유형의 집단들보다 의복을 구입할 때 더 많은 고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미영(1992)의 서울 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물질추구형이 보수절약형, 소극침체형보다 상표의 명성 등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순심(1999)의 청주 지역의 여대생에 관한 연구에서 이들 두 집단이 의복을 구매하기 위하여 점포를 선택할 때 상표의 유명도를 중요시하였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표 4, 표 7과 표 8의 결과를 연관지어 보았을 때, 월평균 의복구입비용이 5만원 이상의 학생들은 상표와 유행성에 대하여 많은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물질추구형은 월평균 의복구입비용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수절약형은 5만원 미만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월평균 의복구입과 생활양식유형, 의복선택기준 이 3가지가 관련성이 있다고 확대 해석할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

의복의 유행성에 대해서는 물질추구형과 미적추구형, 자유개방형이 보수절약형이나 지적성취형보다 더 많은 고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미영(1989)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보수절약형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유행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양식과 의복행동에 관한 김 순심(2000)의 연구에서도 물질추구형 여대생 집단은 유행성 의복 태도와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낸 반면, 보수절약형은 낮은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의복의 맞음새에 대해서는 자유개방형, 보수절약형, 지적성취추구형, 미적추구형 집단이 물질추구형 집단보다 더 많은 고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절약형은 다른 의복선택 기준항목에 대해서는 낮은 관심을 나타내었으나 맞음새 항목에 대해서만은 많은 고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절약형 여대생 집단이 실용성 의복 태도와 매우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던 김 순심(2000)의 연구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집단은 의복의 미적, 신분상징성과 같은 면보다는 몸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와 같은 실용적인 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다른 옷과의 조화와 코디네이션에 대해서는 미적 추구형과 자유개방형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더 많은 고려를 하고 관심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생활양식 유형에 따라 의복선택 기준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월 평균의복구입 비용에 따른 생활양식

생활양식유형 / 의복선택기준	보수절약형	지적성취 추구형	물질추구형	미적추구형	자유개방형	F값
디자인	4.17[a]	4.28[a]	4.08[a]	4.52[b]	4.35[b]	5.810**
가격	4.17	3.90	3.96	4.20	4.12	2.369
색상/무늬	4.14	4.10	4.13	4.30	4.27	1.590
품질	4.04	4.10	3.87	3.86	3.90	1.455
상표	2.55[a]	2.81[a]	3.31[b]	2.71[a]	3.05[b]	10.389**
맞음새	4.13[a]	4.07[a]	3.86[b]	4.02[a]	4.15[a]	2.880*
관리용이	3.62	3.29	3.46	3.53	3.29	1.993
조화(코디)	3.87[a]	3.81[a]	3.89[a]	4.12[b]	4.09[b]	2.433*
유행성	2.91[a]	2.88[a]	3.34[b]	3.31[b]	3.22[b]	5.023**
사후디자인	3.25	3.21	3.43	3.17	3.13	1.601

* $p < .05$ ** $p < .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주 지역의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디자인, 가격, 색상/무늬, 품질, 상표, 맞음새, 관리용이, 다른 옷과의 조화, 유행성, 사후서비스와 같은 의복선택기준들이 생활 양식의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르며 본인의 전공과 월 평균 의복구입비용, 아버지의 학력과 직업, 가족의 월 평균수입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복선택기준과 인구통계적 변인과의 관계〉

1) 예능계 학생들이 비예능계 학생들보다 의복을 구입할 때 품질에 대해서 더 많은 고려를 하였다.

2)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고졸,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생들이 국졸 이하의 학생 집단에 비해 디자인과 다른 옷과의 조화에 대해서 더 많은 고려를 하였다.

3) 가족의 월수입이 높은 집단이 유행성이나 사후 서비스와 같은 의복선택기준 항목을 중요시하였다. 300 -400만원 미만의 집단이 유행성에 대하여, 200-400만원 미만의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사후 서비스에 대하여 더 많은 고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월 평균 의복구입비용이 낮은 집단일수록 구입하려는 의복의 가격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하였으나 월 평균 의복구입비용이 많은 집단은 의복을 구입할 때 의복의 유행성, 상표, 사후 서비스와 같은 상품의 비본질적 속성에 대해서 더 많은 고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의복구입비용이 15만원 이상인 집단이 그 이하인 집단보다 디자인에 대하여, 10만원-20만원의 집단이 상표와 유행성에 대하여 다른 집단보다 더 많은 고려를 하였다. 사후서비스에 대해서는 1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더 많은 고려를 하였다.

5) 전공별, 아버지의 학력에 있어서 한 두가지의 의복선택기준에서 유의성이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족의 월 수입과 본인의 월 평균 의복구입비용과 같은 경제적 요인들에 의해서는 의복선택기준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 생활양식과 의복선택기준과의 관계〉

1) 생활양식의 6가지 차원을 요인 분석한 결과 보수절약형, 지적성취형, 물질추구형, 미적 추구형, 자유개방형 등 5가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그 중 물질추구형이 전체 여대생의 30.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지적성취형이 14.8%를 차지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2) 전공별로 생활양식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일반계열 학생들은 예체능계 학생보다 보수절약형과 자유개방형의 비율이 높았다.

3) 월 평균 의복구입비용과 생활양식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의복구입

비용이 많아질수록 절약검소형 집단의 비율이 낮았다.

4) 생활양식과 의복선택기준간에는 매우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물질추구형은 상표와 유행성에 많은 관심을 나타낸 반면 디자인과 다른 옷과의 조화 항목는 낮은 관심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맞음새 항목에는 다른 그룹에 비해서 매우 낮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의복을 통하여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고자 하고 물질적으로 여유를 추구하는 신분상징지향적인 이 집단은 의복을 구매하기 위하여 점포를 선택할 때 상표의 유명도를 중요시하리라는 점을 유의하여 패션 마케터들은 상표의 홍보 전략에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자유 개방형은 디자인, 상표, 다른 옷과의 조화, 유행성, 맞음새에 대하여 많은 고려를 하였다. 이 집단은 실용적이면서도 신분상징에 관심이 많고 심미추구형이라고 볼 수 있다. 상표의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는 유행을 선도하고 유행에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행성과 신분상징성인 상표는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의복을 통하여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고자 하고 물질적으로 여유를 추구하는 이 집단은 신분을 상징하는 항목을 중요시하고 세련된 감각이 있는 유행 상품을 선호하리라고 본다.

미적 추구형은 디자인과 다른 옷과의 조화, 유행성, 맞음새에 대하여 많은 고려를 하는 반면 상표에 대해서는 낮은 고려를 하였다. 이 집단은 미에 관한 관심이 높은 집단으로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다른 옷과 조화를 이루어 다양하게 착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중요성을 둔다. 특정 상표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서 개성을 발휘하여 스스로 아름다움을 창조하고자 하는 면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지적성취 추구형과 보수절약형의 두 집단은 디자인, 상표, 유행성, 다른 옷과의 조화 등에 대하여 고려도가 낮은 반면 맞음새에는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이 두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표와 유행성과 같은 신분상징성을 중요시하지 않으며 디자인과 같은 미적 요소에 대해서도 낮은 관심을 나타냄으로써 의복에 대하여 무관심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유의성을 나타낸 의복선택기준의 평균값을 비교해보았을 때 디자인을 가장 중요시 여겼고, 맞음새, 다른 옷과의 조화, 유행성, 상표의 순서로 중요시하였다. 유행성, 상표와 같은 비본질적 요소에 비하여 디자인과 맞음새와 같은 의복의 본질적 요소에 대하여 많은 고려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의류 생산자는 상품을 생산하고 기획하여야 한다. 특히 여대생 집단은 의복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집단이므로 의류업체는 유행감각이 있으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다른 옷과의 코디네이션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Behling, D.U., & Wilch, J. (1988). Perceptions of branded clothing by male consumer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6(2), 43-47

Blackwell, R.D., & Hilliker, J.A.S., (1978) Clothing decision : A decision process analysis of focused group interview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5.743_749.

Eckman, M.,Damhorst, M.L. and Kadolph, S.J. (1990). Toward a Model of the In-Store Purchase Decision Process: Consumer Use of Criteria for Evaluatin Women's Apparel.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8(2)

Engel, J.F. Blackwell, R.D. (1982). *Consumer Behavior*. 4rd ed. New York: The Dryden Press.

Francis, S.K. & Dickey, L. E. (1981). Correlates of Women's Satisfaction with Their Purchases of Selected Outerwear: Implications for Satisfaction Theory. In Hunt, H. K. & Day J.L.(Ed.).(1982). *Conceptual and empirical Contributions to Consumer Satisfaction and Complaining Behavior*, Proceedings of the 6th Annual Conference, October 1-2, 54-59.

Gutman, J.and Mills, M.K. (1982). Fashion Life Style, Self Concept, Shopping Orientation and Store Patronage: An Intergrative Analysis. *Journal of Retailing*, 58, 64-85

Howard, J.A.. (1970). *Consumer Behavior application of theory*. New York: McGraw-Hill Book.

Jacoby, J. (1972). *Cue Utilization in the Quality Perception Process*. Proceedings of the 3rd Annual Conference. Ann Arbor, Ml..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167-179.

Jenkins, M.C. and Dickey, L.E. (1976). Consumer Types Based on Evaluative Criteria Underlying Clothing Decision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3), 150-162

Kefgen, M. & Touchie-Specht, P. (1976).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2nd ed. New York: Macmillan.

Kundel, C. (1976). Clothing Practices and Preferences of Blue-Collar Workers and their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4).

McLean, F.P., Roper, L.L. & Smothers, R. (1986). Imported versus Domestic Blouses: Women's Preferences and Purchase Motiv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 306-313.

Smitely, R.C. (1989). *Clothing Preferences of Woman over years of Age in Relation to Their Lifesty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Sproles, G.B. (1979). *Fashion-Consumer Behavior Toward Dress*. Minneapolis. Minnesota: Burgess Publishing Co.

Summers, T.A., Belleau, R.D. and Wozniak, P.J.(1992). Fashion and shopping perceptions, demographics and store partronage.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1(1), 83-91.

김 미영. (1989). 생활양식유형과 의복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 순심. (1999). 여대생의 점포선택에 관한 연구. 서원대학교 응용과학연구소 논문지. 8(1)

김 순심 . 김 선화. (2000). 여대생의 생활양식에 따른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10(2)

김 현미. (1992). 성인 남성의 의복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 은정. (1991). 의복관여도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 동원. (1986). 기성복의 구매 및 사용할 때 불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 선영. (1986). 주부의 라이프스타일유형분석과 관련변인과의 관계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박 은주. (1987). 의복선택기준에 관한 측정치개발의 기초연구(II). 대한가정학회지, 24(4)

박 주철. (1990), 신발 시장의 소비자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효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 미영. (1988). 여성기성복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라이프스타일변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 성주. (1984). 의복시장의 생활양식 세분화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원 선. (1987). 의복변인에 의한 시장세분화 및 라이프스타일변인과의 관련연구 - 20-30대 여성의 복시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 혜주. (1987).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의복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서울 시내 직업 여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 경복. (1991).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여대생의 시간 소비 유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 연화. (1981). 의복의 구매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정 혜영. (1984). 의복구매행위에 관한 실태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7(1)

차 온영. (1991). 직장여성의 구매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앙대학교 국제경영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홍 금희. (1991). 의복제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의 종적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 15, No.1

Abstract

A Study on Female College Students' Clothing Selection Criteria according to Their Life Styles
- Focused on Chungju city -

Kim,Soon-Sim* · Kim, Sun-Hwa**

*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won Univ., Professor
**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chon Univ.,Professor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female students' clothing selection criteria and their life styles according to their demographic data and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their clothing selection criteria according to their life styl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00 female college students in Chungju city through self-administerd questionnaires, and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Cronbach's α, F-test,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one way ANOVA and Duncan Test.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variables of clothing selection criteria according to student's major, father's education level, family's monthly income, student's monthly expenditure on clothing and her companion when purchasing her clothing. Life styles were classified five types. The dimensions of life styl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tudent's major and monthly expenditure on clothing. Ther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life style dimensions and clothing selection criteria.